

## 병원은 생명의 학교

이영숙(베드로) 수녀/성모자애병원 호스피스 과장

“**병**실 곳곳의 많은 환자들을 통하여 보는 병원의 24시는 생명의 시작에서 마침까지인 인간의 전 생애를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곳이다. 분만실에서는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모진 산통을 겪고 있고, 아프다는 표현을 울음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울음 소리가 그칠 틈이 없는 소아과 병동, 수술 후 새로운 삶을 계획하며 희망에 차있는 외과계 환자들, 만성 질환과 성인병 질환들 그리고 암을 진단 받고 자신과 애써 싸우고 있는 내과계 환자들, 보다 많은 의료진의 손길이 요구되어지는 환자들과 의식 없이 누워있는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 중환자실, 식물인간의 상태로 마치 시간을 정지시킨 것 같은 모습으로 만나는 신경외과 병동의 환자들도 있다. 또한 임종 방에서는 애절한 이별식이, 병원 뒤켠 영안실에서는 하느님 곁으로 떠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주검과의 헤어짐이 아쉬운 낮익은 얼굴들이 가슴을 아리게 한다.

나는 병원에서 생활한 12년의 시간 동안 환자들과 임종자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영혼이 생을 마치는 순간을 지켜 볼 때마다 인간의 삶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다고 느껴졌으며,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생활하고 역사 하시며 섬세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곤 하였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한 번을 떠나야 하는 것을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도 함께 시작되기 때문이다. 혹자는 ‘사람은 날마다 죽어 가는 것’ 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다른 혹자는 ‘사람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 죽음과 삶의 순간이 해마다 달마다 순간마다 내 앞을 지나간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며 영혼은 삶의 한 육신 안에 함께 존재하면서 두 모습이 너무나 다른 차이 때문에 생겨난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투병하고 있는 말기 암환자들을 지켜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프다. 마지막 삶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환자는 환자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서로 상처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애처롭기만 하다. 환자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물을 삼키고 보호자들은 문밖으로 나와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들의 안타까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은 무심히 흐르니 죽음의 기억에 생생한 삶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던 한 자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녀는 39세였는데 췌장암 진단을 받고 우리 병원에 입원하였다. 내가 만났을 때는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 되어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인공 항문, 소변줄 등 각종 줄을 5개나 달고 있어야 했다. 그녀는 예쁜 얼굴이었지만 항상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수녀님을 만나고 싶지만 죄가 많다고 하면서 내가 병실로 들어가



면 숨어버리곤 하여 말을 건네기가 어려웠다. 하루는 그녀가 간병인을 통해서 만나기를 청하기에 병실로 들어가 보니 또 숨어버리려고 하였다. 나는 다른 환자에게 얼른 인사를 하고 나서 뒷걸음질 하여 막으며 '죄인 잡았다'하며 그녀를 끌어 안으니 그녀도 나를 부둥켜 안으며 자기 곁에 나를 앉도록 끌었다. 그녀는 자신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해 여러번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그녀의 삶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어려서 부친을 잃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가정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공장에 다녔다. 남편은 부유한 가정의 5남매 중 둘째 아들로써 서울대 출신으로 출퇴근길에 같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알게되어 시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게 되었다. 집안에 大小事가 있어 시댁 식구들이 모이게 될 때면 다른 형제들은 주인 같았고, 그녀는 식모처럼 일만 하었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 때문에 견디어낼 수 있었으며, 세 아들을 낳았고, 열심히 함께 일한 보람으로 집도 장만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고 그녀는 남편을 구하기 위하여 좋은 병원을 다 다녀보았으나, 결국 남편은 온 몸이 마비된 상태로 우리 병원까지 오게 되었고 중환자실에서 40일간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4년을 그렇게 병석에 누워있다고 하였다. 남편이 마비되어 가는 안타까움 때문에 처음에는 온갖 정성을 다 쏟아도 보았으나 차츰 실망과 함께 남편에 대한 사랑도 식어가고 미움과 신세한탄만 나왔다고 하였다.

모든 수고가 다 헛일이었다.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졌고, 빈들에 혼자만 서 있는 것 같아 목놓아 울기를 여러번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 자신의 삶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돌아다니기 시작하였다. 동네 부녀회장을 맡아 활동하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도시락을 싸 주는 대신 돈을 주어 사먹게 하였고, 누워 있는 남편은 죽을 끓여주는 대신 슈퍼에서 캔에 담긴 인스턴트 죽을 사다가 그릇에 옮겨 담아 숟가락을 얹어 누가 보기에 먹이다가 나간 상태처럼 해 놓고는 돌아다녔다. 남편의 대소변도 자주 치워주지 않았다.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자식도 모두가 원망스럽기만 하였다. 그녀는 현재의 자

신의 상태가 남편을 구박했던 죄라고 말하며 병든 육신을 한탄했고, 그녀의 희망인 세 아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반복하여 드문드문 말로 표현하였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부모, 형제,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과 화해하는 마음이 중요하며, 용서는 혼자 힘으로는 어려우므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였다. 병실을 나올 무렵 그녀는 도와달라면서 죽기 전에 시부모님께 자식 대접을 받아보고 형제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다고 애원하였다. 또 예쁜 드레스도 입어보고 싶다고 하였다. 나는 가톨릭의 혼인성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며 그녀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심어 주려고 애쓰며 병실을 나왔다.

그 후 그녀의 시어머니를 만나 며느리의 마음을 전하니 그 분은 며느리가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미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며, 착한 며느리 성실한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당신의 며느리에게 그러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여 주시길 청하니 그분은 백번이라도 하겠다며 병실로 들어가 며느리를 부둥켜안고 울면서 그렇게 해 주셨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시어머니께서 병실을 떠난 뒤 그녀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라고 하시는 것을 들으셨지요? 저는 오늘 모든 원망이 다 풀렸어요” 라고 말하며 기뻐하였다. 그날 저녁은 그녀의 많은 형제와 가족들이 찾아와서 오랜만에 그녀의 예쁜 얼굴이 밝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부평 1동 레지오 단원들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연결시켜 보살펴 주도록 했으며, 그녀는 병실에서 교리를 배우기 시작하고 영세를 하게 되었다. 병세는 더욱 나빠져 가고 있었으며 그녀는 죽음이 다가온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병원에서 죽지 않고 집에 가서 남편 옆에서 죽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10년만 더 살고 싶다고 하였다. 10년이 주어지면 무엇이 쓰고 싶냐고 내가 물으니 “아들을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남편을 극진히 간호하고, 이제는 부모형제의 사랑도 알았으니 효도하고 싶고, 성당도 열심히 나가며 하느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10년을 청합시다.” 라고 내가 말하니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10년은 너무 큰 욕심이라면서 5년만-, 3년만-, 3달만-, 하더니 단 하루만이라도 건강한 날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 하루는 고운 옷을 입고 정성을 다해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상을 차려 함께 식사하며 기쁜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소원이었다. 하느님께는 하루도 천년 같으며 천년도 하루 같아 자매님의 온정을 다 쏟아 가족에게 주는 사랑을 꼭 갚아 주실 것이니 마음을 편하게 갖자고 위로하였다. 그녀의 소원을 담아 내가 기도하는 동안 그녀는 내 손을 꼬옥 잡고 울었다. 그녀가 퇴원하는 날, 그녀는 그녀의 집에 가면 평소 좋아했던 예쁜 옷이 한 벌 있는데 그 옷을 남의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두 번 입었던 적이 있다고 부끄럽게 고백한 후 오늘은 남편을 위해 집에 가면 입고 싶다고 하였다. 그녀와 함께 우리가 집에 도착하니 레지오 단원들이 미리 와서 남편을 깨끗하게 목욕시켜 놓고는 집안 청소를 한 후 성모님을 모시고 모임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가 원하던 옷을 찾아 갈아 입힌 뒤 남편 옆에 눕히니 그녀는 남편의 가슴을 쓰다듬으며 용서해달라고 빌며 자신을 용서한다면 눈을 깜빡거리 보라

고 울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남편은 계속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남편에게 “당신은 내 사랑의 무덤”이라고 말하고는 아들들에게도 “하느님께서 주신 모성을 너희들에게 다 갚지 못하였으나 세상에서 못한 것을 하늘에서 꼭 지켜보겠다”고 하였으며, 시부모 형제들에게도 다시 용서를 청하였다. 그리고 하느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을 포함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죄인으로 보였으나 이제는 모든 것이 소중하고 보다 귀한 존재같이 느껴진다고 말하였다. 또한 고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신 훌륭한 의사선생님을 만난 것과 자신의 짜증에도 싫어하는 내색없이 도와준 고마운 간호사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천천히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 때 레지오 단원들이 성가 ‘주여 임하소서’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가 2절을 불러 모두 끝날까지 부르게 되었다. 그 순간 그녀의 남편이 “어” 하는 소리를 내며 손끝을 떨고 있기에 그 손을 그녀의 어깨에 올려놓았더니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토닥거리 주는 것이었다. 그녀가 울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니 남편도 힘겹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때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 떨리는 마음으로 목주신공을 바치기 시작하였다.

남편의 눈물이 그녀의 얼굴로 흐르고 그녀의 눈물과 합쳐져 남편의 목으로 흘러 옷을 적셨다. 나는 그 눈물이 마치 큰 두 곳의 강줄기가 만나 바다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남편의 눈물은 자비의 눈물이며 아내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니 그 바다는 사랑의 바다인가! 그녀의 숨이 끊어진 것을 남편이 먼저 알아보는 듯 했다.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니 눈물이 가득 고였는데 그 눈 속에 내가 비쳤다. 나는 그녀의 눈을 감겨 주려다가 아들들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엄마의 눈동자를 들여다 보아라. 네가 비칠 것이다. 엄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였다. 엄마가 못다 하신 사랑을 유산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여라.” 하고 그녀의 눈동자를 들여다보게 한 뒤 눈을 감겨 주었다. 모든 행위가 진실되고 숭고한 시간이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산 사람에게 많은 느낌을 주고 간다. 그녀의 회개의 눈물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하늘의 빗물로도 바다의 많은 물로 씻어도 영혼 육신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지만 회개의 눈물은 사람의 영혼 육신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모든 허물을 다 씻은 그 모습을 하느님은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 사랑이 계속되는 그 곳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수많은 고통을 힘들게 겪었지만 큰 사랑으로 성화되고 하느님께 봉헌된 그 삶이 부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나에게 큰 사랑을 깨닫게 해 주었고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을 보여 주었다. 나에게도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할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기워 갚을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이 감사롭다. 한 생을 살다 떠나면서 많은 고통과 역경을 이기고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어 생을 마감하는 은총을 얻는 일이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녀를 바라보며 하느님께서 역사 하시는 우리의 삶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병원을 ‘생명의 학교’라고 부르고 싶다.